



무등산 생태환경과 경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방송통신탑과 통신탑의 이전이 무등산 복원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떠올랐다. 사진은 장불재에 우뚝 선 방송통신탑과 통신탑, 작은 사진은 중봉에 설치된 방송통신탑.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정상 주둔 군부대도 옮겨가는데... 방송·통신탑 年 5만~45만원에 수십년 점용

**국립공원 지청 3년
무등산 옛모습 찾자**

㉠ 방송·통신시설 이전
장불재·중봉 등에 '우뚝'
경관 해치고 환경 훼손
통신·전파 기술 발달로
무등산 고집 이유 없어

5·18 광주민중항쟁을 묵묵히 지켜본 무등산. 광주시민에게는 어머니와도 같은 무등산의 옛 모습은 어땠을까. 군부대가 주둔하기 전 천왕봉·지왕봉·인왕봉, 방송통신탑이 설치되기 전 장불재와 중봉, 원효사 계곡에 상가가 들어서기 전의 무등산 모습. 상상조차 힘든 무등산의 옛 모습, 그곳엔 어떤 동·식물이 터를 잡고 살았을까.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이후 원효사 상가는 이전부지가 확정되는 등 복원 사업이 본격화됐다. 정상의 군부대는 이전부지 확정 등 속제가 남긴 했지만 주둔 50년 만인 지난해 이전을 위한 첫 단추를 꿴다. 가장 더딘 복원 과제는 장불재와 중봉의 방송통신탑이다. 시민들은 무등산 절경을 해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통신탑 이전을 열망하고 있다.

광주일보보 무등산국립공원 지정 3주년을 맞아 무등산의 3대 복원 과제인 방송통신탑, 군부대, 원효사 상가시설 이전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생태계 보호를 위한 시리트를 3회에 걸쳐 연재한다. <관련기사 7면>

는 이유로, KT는 군 통신망을 유지하고 있는데다 방송통신탑이 존재하는데 통신탑이 먼저 나갈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방송 3사와 KT가 방송·통신탑 설치와 이용을 대가로 광주시에 지급하는 사용료가 시민들 정서와는 괴리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불재에 각각 4113㎡·6315㎡의 부지를 점용, 방송통신탑과 통신탑을 설치·운영하는 A방송사와 KT는 3년간 각각 104만7370원과 134만2050원을 사용료로 지급하고 있다. 중봉에 방송통신탑을 설치·운영 중인 B방송사, C방송사의 경우 각각 20만4120원(964㎡), 16만550원(789㎡)을 3년 사용료로 광주시에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무등산 1㎡를 1년 사용하는 비용으로 채 100원(70원)이 안 되는 비용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자판기 10여대를 무등산국립공원에 두고 사업을 벌이는 5·18 관련 단체가 광주시에 지불하는 비용(3년 33만원)보다 적다는 점에서 광주시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 조례를 내세워 방송사에 부과한 사용료가 시민들 정서와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2면으로 계속>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국립공원 지정 이후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을 위한 첫 단추가 채워지면서 장불재와 중봉·북봉에 우뚝 선 방송·통신탑 이전이 복원사업의 핵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50년간 무등산에 군군히 주둔하던 공군부대 이전이 가시화된 마당에 방송 3사의 방송통신탑과 KT가 운영하는 통신탑도 공원 구역 밖으로 이전시켜 무등산의 옛 모습을 찾아야한다는 것이다.

통신기술 발달로 방송·통신탑이 더 이상 무등산을 고집할 이유가 사라진데다

용역을 통해 대체부지 검토까지 이뤄진 만큼 환경부와 방송·통신사가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환경단체는 지적하고 있다.

2월 광주시와 무등산국립공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2월 무등산 정상부 경관 및 자연환경 복원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장불재(920m)와 중봉에 위치한 방송·통신탑 시설에 기술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지난 2013년 9월부터 1년간 조사한 결과 방송·통신탑 이전부지로는 장성 불태산(해발 710m)이 첫 번째 안으로 검토됐다. 방송 서비스 영역, 통신망 구성 가능

성, 전파환경 및 생태환경 등을 두루 살핀 결과였다. 공원구역 밖으로 방송통신탑이 이전한다는 점에서 훼손지 복원 및 경관 복원 효과가 우수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혔지만 800억원에 이르는 비용이 걸림돌이 됐다. 중봉과 북봉에 설치된 방송통신탑을 장불재로 이전, 통합하는 두번째 안은 비용(250억원) 면에서는 장점으로 작용하지만 복원 효과가 미미하던 점에서 설득력이 약하다.

하지만 국립공원 지정 이후 진행된 방송·통신탑 이전 논의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1년 이상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방송 3사의 경우 재정 형편이 여의치 않

박지원 국민의당 합류

원내교섭단체 -2...더민주와 호남 주도권 경쟁 유리한 고지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2일 국민의당에 전격 합류했다. <관련기사 3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통하는 박 의원의 합류로 국민의당 의석은 18석으로 늘게 됐으며, 원내교섭단체 구성(20명)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특히, 호남 정치권에 상당한 영향력 이 있는 박 의원의 합류로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과의 호남 주도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안철수·전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와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40여분 회동을 가진 뒤 국민의당 입당을 선언했다. 이들은 공동합의문에서 "우리 사회의 격차 해소, 지역 화합, 한반도 평화 그리고 2017년 여야 정권교체를 위해 조건 없이 협력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합의문을 통해 "국민의당에 합류해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헌신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합류를 계기로 더민주 탈당 이후, 제 3지대에 머물던 권노갑 전 고문 등 DJ 가신그룹인 동료동계 인사들도 국

민의당에 입당키로 했다. 박 의원의 국민의당 합류로 더민주 현역 국회의원들이 버티고 있는 전남 서부권 등 호남지역 총선 판세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당장 국민의당은 광주(전정배)-전남(박지원)-전북(정동영)으로 이어지는 호남 벨트가 완성된 것을 계기로 전열을 정비, 충청권과 수도권으로 바랍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국민의당은 DJ 및 호남의 정통성을 일찌기 부분 확보하게 되면서 수도권 호남 표심 결집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더민주의 광주에 이어 전남에서도 국민의당에 상대적 우위를 장담할 수 없게 되면서 호남 주도권 경쟁에 '비상'이 걸렸다. 정치권 관계자는 "박 의원과 동료동계의 합류는 지지율 하락세 등으로 위기감이 확산됐던 국민의당에 반전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이라며 "총선 40여일을 앞두고 호남 주도권을 둘러싼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피말리는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유엔, 슈퍼 대북제재 결의...北 자금줄 차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일(현지시간)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응징하고자 마련한 대북 제재결의안의 채택을 하루 연기했다. 안보리는 당초 이날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2일 오전 10시(한국시간 3일 0시)로 순연했다.

북한의 1월 4차 핵실험과 2월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이번 대북 제재 결의안에는 북한의 모든 화물 검색, 항공 수출 금지, 광물거래 차단 등 핵·미사일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북한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망라됐다. 지난 20여년 간 취해진 안보리의 제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수위로 평가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북한의 12개 단체와

16명의 개인이 추가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수입이 금지되는 사치품의 목록도 추가돼 고급 시계, 수상 레크리에이션 장비, 미화 2000 달러 이상의 스노모빌, 납 크리스털,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장비가 새로 들어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제재안 초안은 지난달 25일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처음 회람·공개됐으나, 이사회 가운데 러시아가 이 문건에 동의하지 않아 최종 채택이 지연돼 왔다. 이후 미국과 러시아 간의 내용 협의 과정에서 일부 사항이 약간 바뀌었다. 외신에 따르면, '북한산 광물 거래 제한 규정을 북한 나진항을 통해 수출되는 외국인 선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러시아의 요구로 수정된 결의안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4·13 표발 점검 - 나주·화순 ▶5면
파독간호사 1호 광주 박애자씨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승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주)나라판넬은 고객을 감동시키는 뛰어난 기술을 바탕으로 완벽한 제품, 판매조직을 목표로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하며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고객만족 서비스 마인드를 기본으로 (주)나라판넬의 조직 문화를 느끼며 함께 성장할수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 모집부서 및 자격요건 | | | | | |
|-------------|------|----|-----------|------------------------|----------------------------------|
| 근무지 | 모집부서 | 인원 | 자격요건 및 업무 | 제출서류 | |
| 광주영업소 | 관리부 | 남 | 0명 | 총괄관리자 | * 경력사원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
| | | 여 | 0명 | 사무보조 | |
| | 영업부 | 남 | 00명 | 국내영업 유경험자 건축영업 유경험자 | |
| | | 여 | 0명 | 판매관리 및 사무보조 | |
| 순천본사 | 관리부 | 남 | 0명 | 공무, CAD가능자 | * 공통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
| | | 남 | 0명 | 국내영업 유경험자 | |
| | 영업부 | 남 | 0명 | 단순제조원 | |
| | | 남 | 0명 | 산업기능요원 | |

NARA
(주)나라판넬
(주)이오판넬
(주)나라T.L.B
(주)나라케미칼

전형절차 및 제출서류

- 전형절차: 서류전형 및 면접
-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접수기간 및 방법

- 마감일: 2016년 3월 15일
- 접수방법: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전남 담양군 금성면 봉서리 31 (주)나라케미칼)
- 문의사항: (주)나라판넬 관리부 061)727-8058 (주)나라케미칼 관리부 061)381-8058